

약용작물 안전한 겨울나기 소개

농촌진흥청, 피복재 덮어 보온·비료량·저장 관리 방법 등 확인 당부

약용작물은 주로 뿌리를 이용하고, 여러 해에 걸쳐 재배하므로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겨울 관리가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감초, 더덕 등 추위에 유의해야 할 5종 작물의 겨울나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약용작물

감초는 중북부 산간 지역에서 재배할 때, 겨울나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감초를 옮겨 심은 뒤에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싹 나는 부위인 노두를 노출할 때가 많은데, 노두가 밖에 나오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피조, 비닐 등 피복재로 노두를 덮어줘야 한다. 여러 해에 걸쳐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더 유의해야 하며, 되도록 산간 재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더덕은 본밭에 심은 후 2~3년까지 수확할 수 있다. 겨울을 날 때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 윗부분(지상부)은 번성하지만, 뿌리 조직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뿌리썩음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료는 10아르(a)당 피

비 1,500kg, 질소, 인산, 칼륨은 각각 6kg 정도 주는 것이 알맞다.

강황은 캐낸 모종을 바로 본밭에 심어야 뿌리가 안정된 상태로 겨울을 난다. 이때 흙을 두껍게 덮고 가볍게 눌러주면 서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늦가을에 수확한 뿌리줄기는 벌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만, 겨울나기가 가능한 남부지역에서 2~3월께 수확한 강황은 따로 저장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석창포는 고랭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중북부 지역에서는 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벗짚이나 낙엽을 5cm 두께로 덮어두면 얼지 않고 수분이 유지된다. 덮은

벗짚, 낙엽은 이듬해 4월 초 제거한다.

천문동은 남부지역에서는 11월 안에 심어야 적당하며, 중북부 지역에서는 언 땅이 녹는 4월에 심는 것이 좋다. 너무 일찍 심으면 땅속 온도가 낮아 싹 트는 것이 지연되고 늦서리 피해를 볼 수 있다. 본밭에 아주심기한 뒤 3년 차부터 수확할 수 있다. 수확 시기는 10월 초부터 다음 해 봄이 오기 전 까지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운영호 과장은 "약용작물은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만큼 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피해를 예방하고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약용작물의 재배 관리 정보는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밥심나눔적금' 가입

전북특별자치도, 건강한 쌀 소비문화 확산 위해 출시

전북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5일 전주농협을 찾아 사회공헌형 '밥심나눔적금' 출시에 따른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일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등이 참석해 '밥심나눔적금'을 가입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밥심나눔적금'은 밥을 통해 건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건강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출시됐고, 상품가입만으로 쌀 기부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10만화 한도로 판매 예정이며, 개인이면 누구나 1인 최대 2계좌까지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고 서

약을 통해 '아침밥 먹기' 생활실천에 동참하면 가입자 전원에게 최저 1%p~최고 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적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전개해 우리지역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우대금리도 받고, 상품 가입만으로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더 확산되어 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권영진 의원 주최 특별 세미나 참석해 의견 청취·교류 나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이 지난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이 지난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은행을 비롯해 광주, 부산, 제주, 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 등 6개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 금융의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은행 특화 규제,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진교 계명대 교수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자금에 지방은행에 예치할 경우 지역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기업의 투자재원이 확보됨으로

지역내총생산과 고용에도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등 선순환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공동 출연으로

'지역발전 기금조성', 지방은행 이용비율 명시, 공공기관의 평가항목 개정 등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도 이전 공공기관이 주거래 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요구불예금 등 운영자금을 지방은행을 통해 지역경제주체에 공급하면 지역내 총생산과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거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올해 전북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은행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집중단속은 주요 철새 도래지, 밀렵·밀거래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행사, 야생생물 보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밀렵 신고 포상제도'도 지속 운영 중이다.

'밀렵신고 포상제도'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등 음행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환경신문고(국민신문 128),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위촉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정철영 위원장) 제1차 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6

이에 앞서 김정태 회장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올해 10월 1일 출범)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명)으로 모두 5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국가위원회 2년 임기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2020년 마련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할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옥기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지역 외국인력 고용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강우용)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외국인력 고용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으로 269만원을 지급(2024년 9월 기준)하고 있으며, 응답기업 중과반수 이상(55.4%)이 현행 외국인력 제도 중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 가장 시급

한 개선과제라고 응답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유에 대해 대다수의 중소기업(87.7%)은 '내국인 구인 애로'라고 응답했으며,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5.3%), △인건비 절감(4.4%) 순으로 응답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서 '언어 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찾은 사업장 변경 요구' 24.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 1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